“가야불교 왜곡하는 ‘김해시史’ 폐기하라”

가야문화진흥원, ‘김해시사’ 폐기 촉구 성명서 발표

장유 화상 · 허왕후 존재 등
가야불교 전면 부정해 ‘논란’
김해시사 편찬 토론회서 격론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도명 스님)이 가야불교사를 왜곡하는 〈김해시사(金海市史)〉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사)가야문화진흥원과 은하사, 장유사, 흥부암 등 김해시 불교계는 11월 4일 〈김해시사〉 2권의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해시사〉가 가야불교사를 부정하고, 식민사관으로 점철됐다는 것이 성명서의 주장이다.

(사)가야문화진흥원은 성명서에서 “김해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남기려는 김해시사 고대사 편은 심각하게 왜곡됐다. 특히 가야의 42년 건국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허왕후의 존재 또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희석했다”며 “가야초기 장유 화상과 허왕후에 의해 전해진 가야불교를 전면 부정하고 김해의 옛 지명인 가야를 과거 일제 식민사학의 유풍을 이어 임나(任那)로 고정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해시사 2권은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서에는 “가야불교를 부정하는 조원영 전 합천박물관장을 저자로 선정했다”면서 가야불교를 인정하는 동국대 교수를 비롯한 불교학자들의 자료는 제외하고 편향된 자료들로만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필의 균형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곳곳에 ‘의문스럽다’ ‘꾸며졌다’ ‘가미했다’ ‘불교적 윤색이다’ 등의 용어가 등장해 시종일관 가야불교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가야문화진흥원은 김해불교의 정체성인 가야불교를 부정하고, 은하사, 장유사, 만어사 등 연기 사찰들의 역사성을 훼손하려는 시사편찬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흥원은 “20억여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로 가야역사의 발굴은 커녕 왜곡된 역사 기술로 김해 시민과 불교계를 기만한 시사편찬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성토했다.

김해시 불교계도 김해시사의 폐기를 요구했다. 김해시 불교계는 “역사를 부정하고, 식민사관으로 점철된 김해시사 2권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김해시사는 학자 개인의 주장을 싣는 자료집이 아니라, 김해 역사의 일관성을 갖춘 통사(通史)로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시사 토론회’가 열린 국립김해박물관 앞에서 역사시민운동 단체 회원들이 김해시사 편찬 위의 가야사 왜곡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또한 “김해의 정체성은 ‘가야고도’다. 김해시가 선봉에서 〈일본서기〉의 임나를 끌고 와 ‘임나사’를 세우려 한다. 검증 안 된 임나의 지명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면서 “왜곡된 역사서가 편찬되면 김해시민의 자긍심은 고사하고 향후 주변국과 외교·안보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가야문화진흥원은 11월 11일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이번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가야사, 어떻게 서술해야 하나’를 주제로 ‘김해시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역사운동시민단체 측과 김해시사 편찬위원회 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역사시민단체 측에서는 김영진 전 경상남도 도의원과 오종흥 코리아히스토리 편집장이, 편찬위 측에서는 이근우 부경대 교수와 이주현 부산고고학회장이 발제자로 나서 격론을 벌였다.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은 “양측 견해차가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토론회를 통해 편찬위의 편향된 역사관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정상적인 시사(市史)라면 그동안 발굴되고 축적된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 성과물로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편찬위는 이를 외면하고 부정하고 있어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님 뒤에 계셔요…수능 대박 기원!”

정광학원, 수험생에 선물 전달
핫팩 · 찹쌀떡 등 세트로 구성
덕문 스님, 선물 전달로 격려해
정광중고 700여 명 수계법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신 있게 수능 시험 보세요. 여러분 뒤에는 부처님과 많은 스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광학원 이사장 덕문 스님이 광주 정광고 수험생들에게 ‘수능대박 선물세트’를 전달하며 이같이 말했다.

불교종립 학교법인 정광학원(이사장 덕문 스님)은 11월 11일 대학수험능력시험을 앞둔 광주 정광고(교장 영일 스님) 수험생 306명에게 ‘수능대박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사장 덕문 스님을 비롯해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 광주 증심사 중현 스님 등이 정광고 12개 반을 모두 방문해 선물을 전했다.


정광학원 이사장 덕문 스님이 학생들에게 연비의식을 하고 있다.

교실을 방문한 덕문 스님은 “그동안 준비했던 수능시험이 다가왔는데,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신있게 시험을 보기를 바란다”며 “여러분 뒤에서 부처님과 많은 스님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날 학생들에게 전달한 선물세트에는 수능에 필요한 목록이 적힌 ‘수험생 체크리스트’와 ‘잘 풀려라’는 의미가 담긴 화장지, ‘합격하라’는 찹쌀떡 과자와 핫팩 등 다채로운 물품으로 구성됐다.

선물을 받은 수험생들은 ‘스님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칠판 글씨와 함성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룸비니관에서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수계법회에는 이사장 덕문 스님과 화엄사 교구 스님들이 7증사로 참여했다. 이날 법회로 정광고 학생 498명과 정광중 180명, 교직원과 학부모를 포함해 총 700여 명이 불자로 거듭났다.

연비를 통해 불자로 태어난 학생들은 발원문을 통해 “저희 수계자들은 부처님 전에 삼귀의를 다짐하고 5계를 받아 부처님을 믿고 받드는 참다운 불제자가 됐다”며 “이제부터 불자로서의 의무와 행실을 다하오리니 자비를 실천하여 사랑과 기쁨이 충만된 삶을 살아 이 땅위에 부처님의 불국정토가 이룩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상을 예배 대상으로… ‘불복장작법’ 시연

보존회 11월 11일 백양사서
3년간 후학 전수 회향 자리



새로 조성한 불상에 숨결을 불어넣어 예배와 공양의 대상으로 만드는 ‘불복장작법’ 시연이 펼쳐졌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작법보존회(회장 경암 스님)는 11월 11일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 교육관에서 ‘2024년 불복장작법 공개행사’를 개최했다.〈사진〉

불복장작법은 불상·불화 등을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物目)을 봉안해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의식이다. 이 의식은 고려시대부터 700년 이상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주지 무공 스님은 “백양사는 선맥과 강맥, 율맥 그리고 염불맥 등 4대 맥이 면면히 이어져 왔다”며 “특히 염불맥 중에서도 불복장작법이 도성 스님에게 전수되어 앞으로 모든 종단에도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날 시연을 주관한 도성 스님도 “교육생들이 오늘 교육을 통해 불복장의 의미와 의식 전체를 보고 배우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시연은 절단(단차림)에 이어 도량결계, 삼화상청, 오방단 조성, 후령통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행사의 가장 중요한 의식인 오방단에서 진행된 오보병 조성은 증명법사 백양사 수좌 일수 스님과 아사리 도성 스님을 위시해 오방법사 현소(중앙), 종지(남방), 송강(동방), 우인(서방), 승담(북방) 스님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비나눔으로 회향하는 도량 되겠다”

마이산 탑사, 가을 산신대재
11월 9일 경내 특별법단서
자비의 쌀 3000kg 나눔해



마이산 탑사가 가을 맞이 산신대재를 봉행하고 자비의 쌀 3000kg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진안 마이산 탑사(회주 진성 스님)가 11월 9일 경내 돌탑군 앞 특별법단에서 갑진년 가을 산신대재와 백제 청동향로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특별법단에는 공양물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자비의 쌀 3000kg가 진설됐다.

1부 기념법회에서 (사)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은 복성산업개발, 태원건설, 혁신금속의 후원으로 마련된 1000만원 상당의 자비의 쌀 3000kg를 진안군에 전달했다.

마이산 탑사 갑진년 가을 산신재에는 진성 스님과 신도대표가 법단에 올라 〈무량수경〉을 독송했다. 이어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산신기도, 산신불공, 신중작법, 39위 신장법문, 천지기도가 설행됐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마이산 탑사는 탑을 축조하신 이갑룡 거사께서 산신재 기금으로 만주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도왔던 큰 뜻을 이어오고 있다”며 “오늘 산신재와 백제청동향로 점안식을 통해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 3000kg를 전달하는 것도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늘 자비심을 바탕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행복이 넘치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덕원사, 울산 첫 반려동물 천도재 봉행

11월 10일 경내 대웅전서
400여 보호자 동참해 애도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 항상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덕원사에서 이렇게 천도재를 준비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반려동물을 떠나보냈던 조윤지, 장원찬 부부가 덕원사가 봉행한 울산 첫 반려동물 무료 합동 천도재·예수재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울산 덕원사(주지 덕원 스님)가 11월 10일 경내 대웅전에서 울산지역 최초로 반려동물 무료 합동 천도재 및 예수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천도재에는 덕원 스님, 월정사 한주 현기 스님, 강한설 덕원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들과 울산, 포항, 경주 등 인근지역에서 반려동물과 이별한 반려동물 보호자 400여 명이 동참했다.

여법한 천도재를 위해 덕원사는 반려동물 영단과 350여 개의 위패를 마련했다. 동참 대중은 각자 준비한 공양물을 영단에 올리며 반려동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덕원 스님은 “반려동물이 육도윤회를 통해 다음 생에는 선도(善道)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의식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복지재단·고창종합병원, MOU 체결

11월 7일 선운사 동상실서



사회복지법인 선운사복지재단(대표이사 경우 스님)과 고창종합병원(이사장 조남열)이 11월 7일 고창 선운사 동상실에서 공동발전과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날 체결된 협약은 △환자진료와 공공 발전을 위한 인적·기술적 지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및 봉사활동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발전 공동노력 △상호필요한 교육 참여 기회 제공 △건강 증진 사업협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우 스님은 “선운사복지재단의 건강 파트너이자 지역 의료기관인 고창종합병원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하위하라, 어린이불교학교 졸업식

11월 10일 유원대 대강당서



아산 마하위하라(주지 담마끼띠 스님)가 11월 10일 유원대 대강당에서 ‘2024년 어린이 불교학교 졸업식’을 개최하고 33명의 어린이 졸업생을 배출했다.〈사진〉

마하위하라는 어려운 이주 생활에서도 어린이들이 불교를 배우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불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담마끼띠 스님을 비롯한 마하위하라 스님들과 한석실 유원대 교무처장, 박용환 국제교류원장 및 졸업생 학부모들이 함께했다.

담마끼띠 스님은 “어린이들이 부처님 정법으로 훌륭한 어른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해남사, 21일 금강경 독송 회향법회

11월 13일 경내 설법보전서



해남사가 21일간의 금강경 독송 정진을 회향했다.

울산 해남사(주지 혜원 스님)는 11월 13일 경내 설법보전에서 ‘제7차 금강경 21독 독송 정진법회’를 회향했다.〈사진〉 해남사 금강경 독송법회는 21일간 하루 3차례의 정진을 통해 총 441독을 독송했다.

회향법회에는 해남사 주지 혜원 스님, 한주 만초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과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혜원 스님은 “해남사에 부임한 이래 금강경을 독송하는 도량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여러분의 수행정진으로 반드시 무량한 공덕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불교聯 광주 불교유산 학술대회

11월 8일 광주시청 무등홀서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가 11월 8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광주 불교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학술대회는 2024 빛고을관등회 일환으로 호남학연구원(원장 정명중)이 주관하고 광주광역시가 후원해 개최됐다.

이날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빛고을관등회를 통해 지역 불교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불교를 비롯한 전통문화는 천년의 시간이 보증하는 콘텐츠로 앞으로도 이런 문화를 후대에 잘 전승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